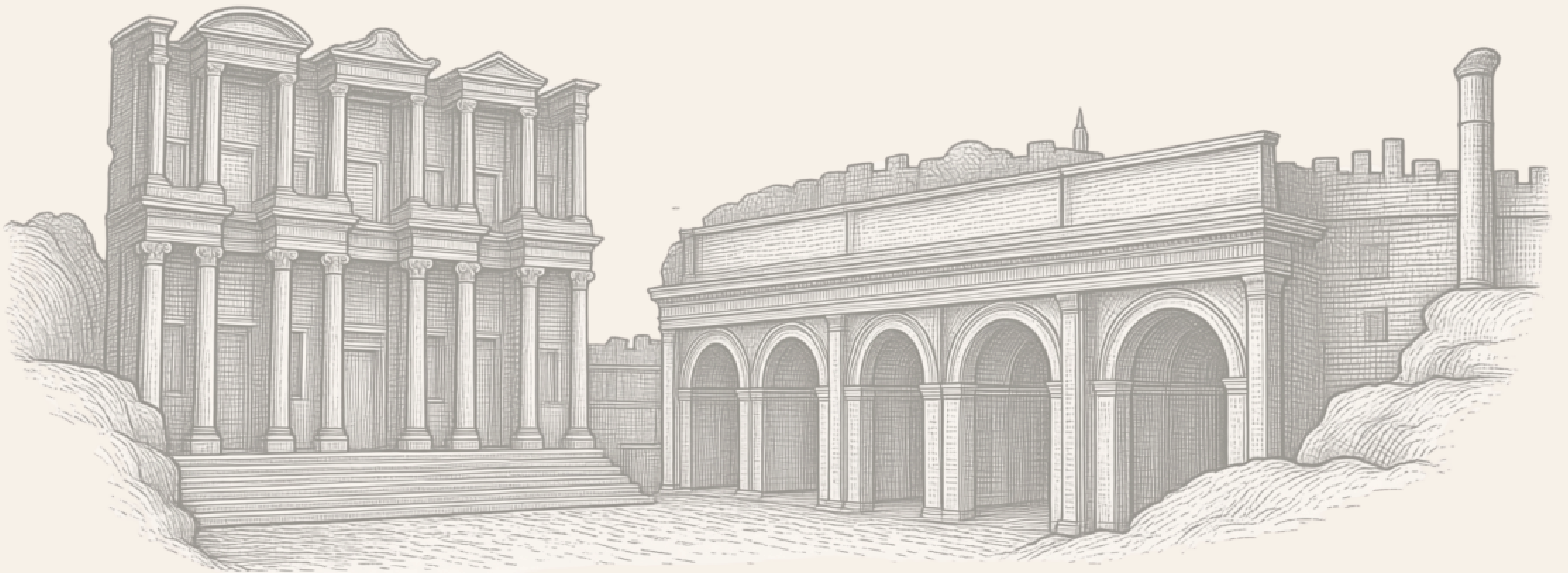


튀르키예 이슬람 배경의 신자를 위한 성경 가이드

2천 년 전 서머나,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폴리갑이 순교했던 땅, 이즈미르에 사는 한 청년이 옷장 앞에 서서 묻습니다. "선지자의 집을 방문하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지?" 이 질문 안에 진리를 향한 진지함과 갈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 **Felicity** 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이름은 하늘 나라 해달별 입니다. 2022년 봄, 다섯 식구가 한국을 떠나 FMB 파송으로 튀르키예 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멜신에서 2년간 언어를 익힌 후, 이즈미르(서머나)로 이주해 카르시야카 교회에서 설교·청년모임·주일학교·SNS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가 현장에서 만난 **실제상황이며 현재도 진행중인 이야기** 입니다.

“선지자가 사는 집이 이즈미르에 있어? 우리가 거기 가는 거야?”

| | | |
|--|--|---|
|  <p>환대</p> <p>한국 문화의 밤 방문. 카톨릭 교회의 차가운 기억과 달리, 따뜻한 환대를 경험. '저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p> |  <p>거룩한 오해</p> <p>기도 모임 중 'Eymen이 이렇게 말했어...'라는 나눔을 듣고, Eymen을 성경 속 선지자로 확신.</p> |  <p>옷장 앞의 고민</p> <p>금요 모임이 Eymen의 집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A형제가 선지자의 집에 입고 갈 옷을 고르며 망설임.</p> |
|--|--|---|

A형제와 S자매의 이야기

연인 사이인 A형제(26세), S자매(26세)는 작년 가을 한국 문화의 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교회 행사'라는 사실을 알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 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S자매는 이전에 한 번 카톨릭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의식, 그리고 낯선 사람들 — 문을 열고 들어가도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S자매의 마지막 카톨릭 교회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르시야카 교회에서 열린 한국 문화의 밤은 달랐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순간, 사람들이 일어나서 맞아주었습니다. 함께 김밥과 떡볶이를 나누어 먹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S자매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

그 후로 두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기도 모임에서, 성도들이 “Eymen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Eymen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 한 명임이 틀림없다고**. 그러던 어느 날, 매달 한 번 성도들이 한 집에 모이는 금요 모임의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이번 달은 Eymen의 집 차례라고 했습니다. S자매는 A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사는 집이 이즈미르에 있어? 우리가 거기 가는 거야?”** A형제는 그날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선지자의 집을 방문하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날, 두 사람은 Eymen(현지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성경의 선지자가 아니라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동안 교회에서 큰 웃음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의 반복되는 장면



A&S 커플

이제 막 정착한 새 신자.
바울이 누구인지, 베드로가 누구인지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

G형제, M자매

일하며 오디오 성경을 듣는 청년.
밤낮없이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짐:
"이게 무슨 뜻인가요?"

G 형제는 매일 일하면서 오디오 성경을 청취합니다. 듣고 난 후, 그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 1회 모이는 청년 모임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즉시 답해줄 사람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G 형제는 자정, 새벽, 심지어 일하는 중간에도 성경을 읽습니다. M 자매는 설거지와 다림질 등의 집안 일을 하면서 오디오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이야기책처럼 느껴집니다.

이슬람 배경에서 자란 새 신자가 혼자서 성경을 읽기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이 낯설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지 모릅니다. 둘째, **읽다가 막히면 멈추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어릴 적부터 들어온 것과는 달라서 쉽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막혔을 때 **질문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AI에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AI는 이슬람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며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 어려운 3가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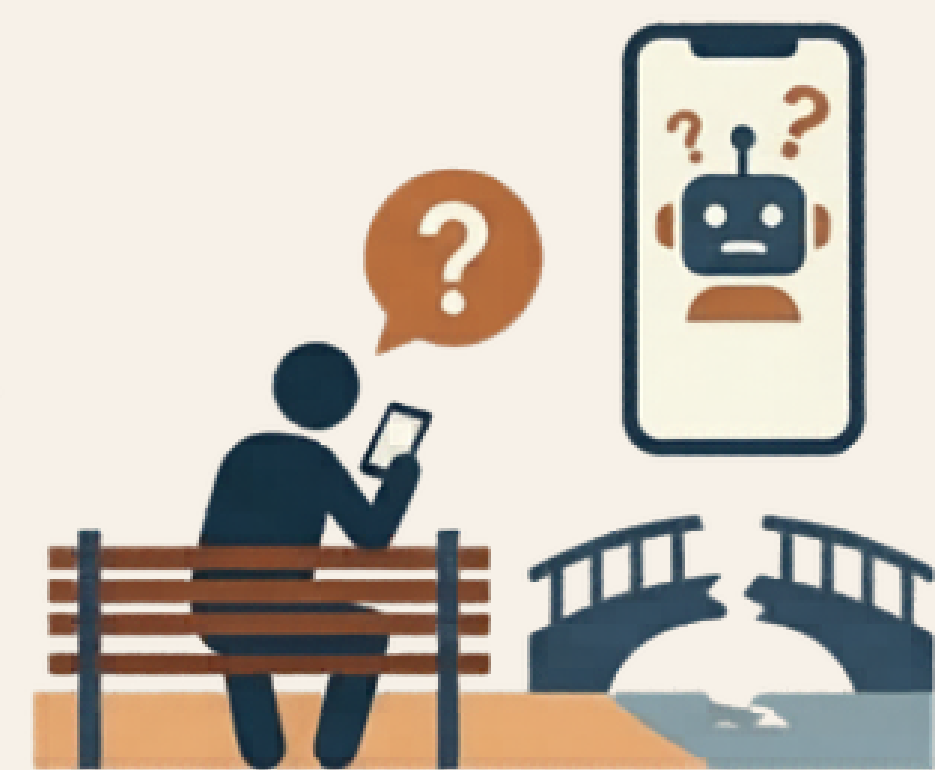
1. 막막함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무슨 순서로 읽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2. 신학적 충돌

예수는 하나님이다,
십자가의 죽음 등 이슬람 교리와
충돌하는 문장들.



3. 안내자의 부재

질문이 생겼을 때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움.
AI는 이슬람 배경의
영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함.



청년 모임에서 질문이 많은 A형제는 매년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으로 인해 7시에 시작한 모임은 어느새 밤 11시 가까이 되어야 끝나곤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을 읽기로 한 뒤 일주일 후 다시 만난 A형제의 소감은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였습니다. 예배 후 교제 시간에 S자매가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 속상해요**”라고 한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이해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소원함에서 **Felicity**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역 패러다임의 확장적 전환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궁금증 해결!

이른 새벽에 묵상하고 싶을 때, 학교에서 일터에서 혹은 이즈미르가 아닌 다른 도시에 있어도 **Felicity**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성경 가이드.

Felicity 는 라틴어로 '행복' —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이것이 이 플랫폼의 이름이자 방향입니다.

Felicity (felicity.today)는 이슬람 배경인 튀르키예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혼자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성경 가이드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구성

46일

성경 길잡이 (5-8분 / 일)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이슬람 배경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슬람 맥락 노트** 를 함께 담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건가요?" 각자의 질문에서 시작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가도록.

함께 제공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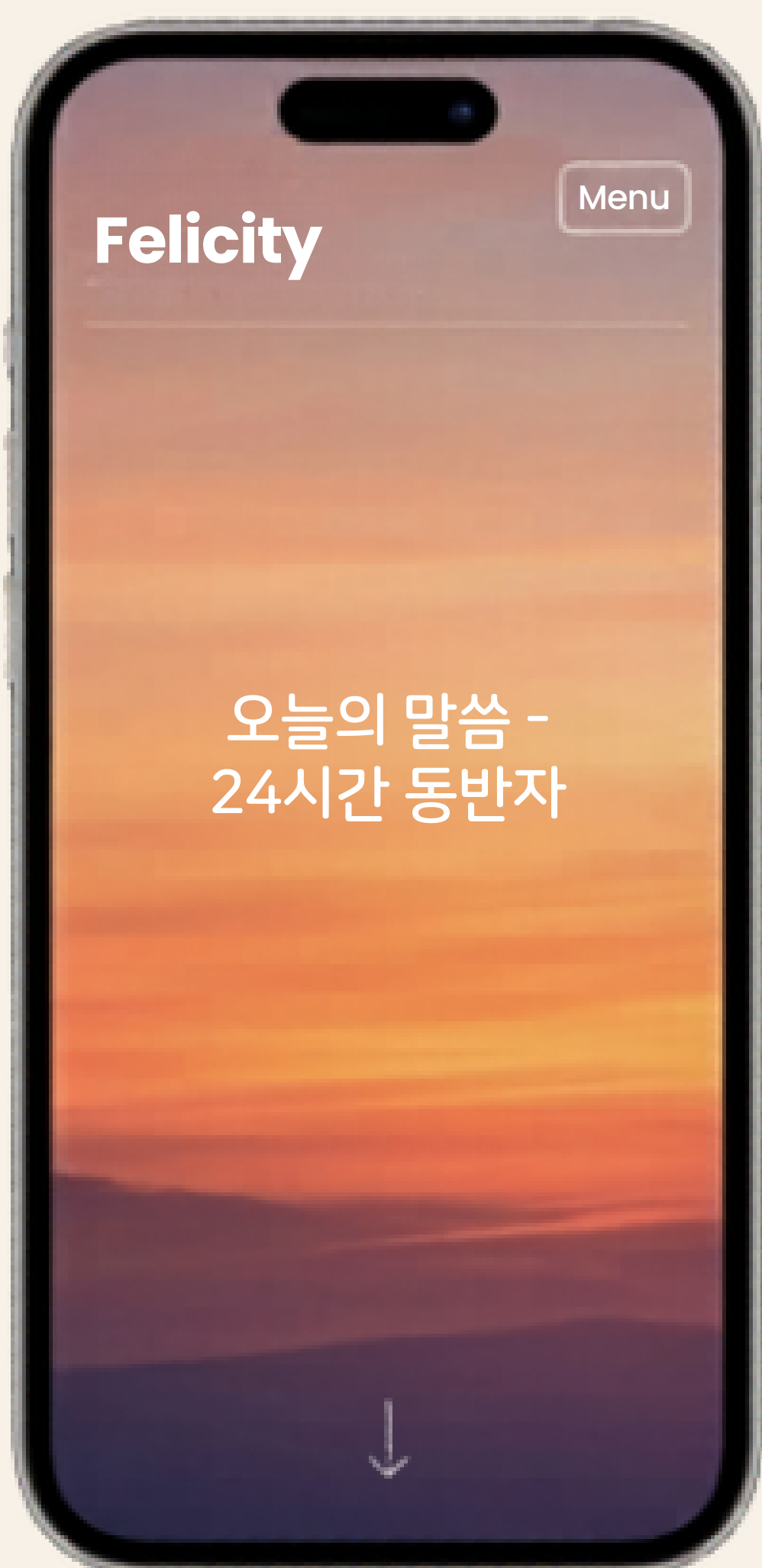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성경은 변조되지 않았나요?"

"삼위일체는 세 분의 신 아닌가요?"

"가족들에게 기독교인임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 현장에서 반복해서 받아온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Felicity 알아보기

felicity.today — 온라인 성경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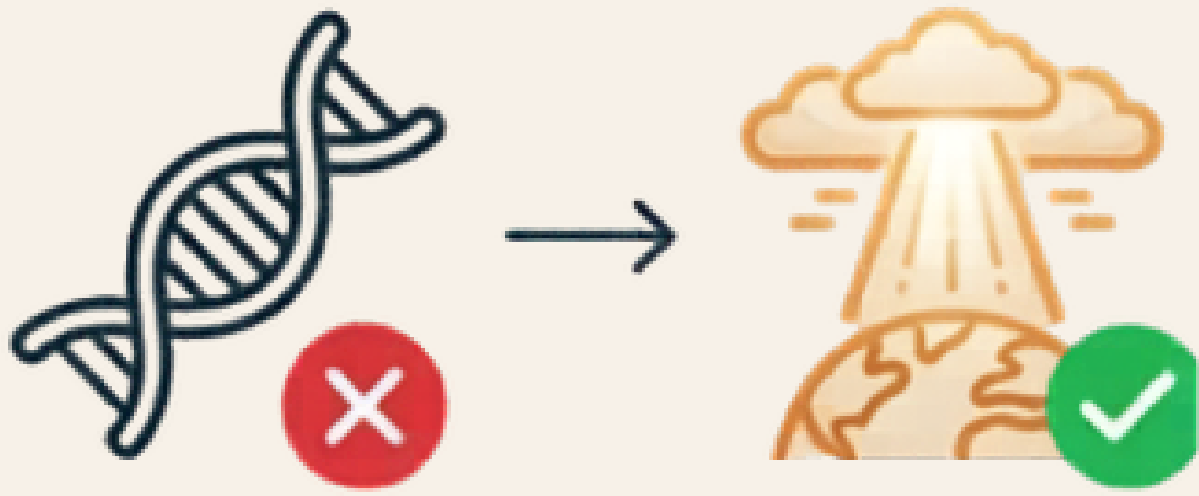
- ✔ **24/7 접근성**
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 (이메일 알림 제공, WhatsApp 확장 예정).
- ✔ **매일 5-8분**
매일 5~8분 투자. 한장의 치열한 고민이 담긴 복음서 46일 길잡이
- ✔ **목적**
단순한 성경 요약이 아닌, 이슬람 배경에 특화된 맥락 노트' 제공.

단순한 요약이 아닌, 이슬람 맥락을 돌파하는 해설

이슬람 맥락 노트 (Context Note)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영적 나침반.

독자의 오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건가요?'



복음서 46일 길잡이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요한복음 1장] 연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생물학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알아보기](#)

자주 하는 질문들 (FAQ)

현장 사역에서 확인된 가장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

- '성경은 변조되지 않았나요?'
- '삼위일체는 세 분의 신 아닌가요?'
- '가족들에게 기독교인임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한

한국어 초안

한국어로 영적 핵심을 담아 기획 및 작성.

TR

튀르키예어 번역

현지어 번역 후, 이즈미르 기독교 출판사 대표/목회자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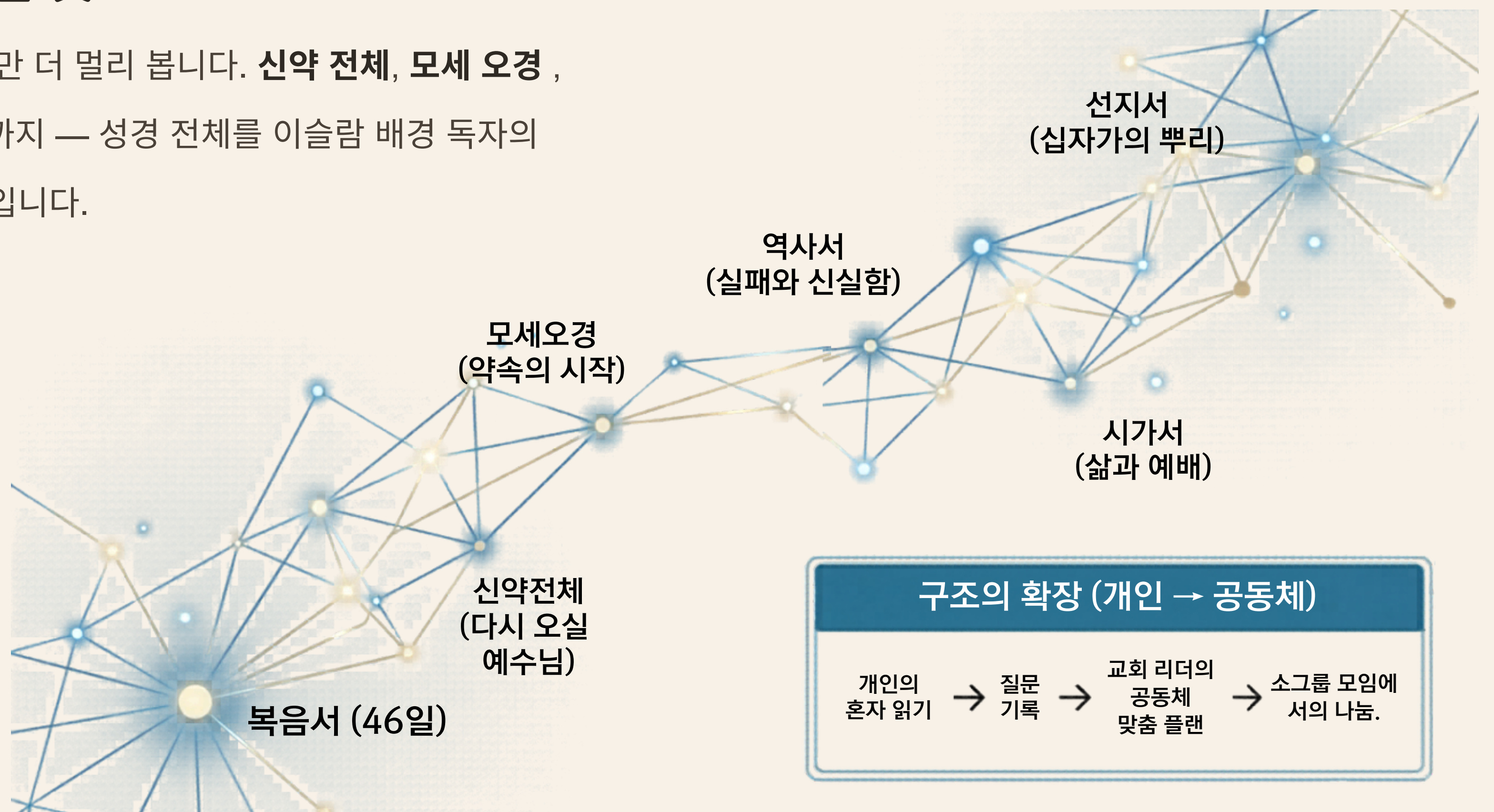
→

웹사이트 공개 및 자동발송

이메일·이후 WhatsApp으로 자동 전달.

Felicity가 향하는 곳

복음서 46일로 시작하지만 더 멀리 봅니다. **신약 전체, 모세 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까지 — 성경 전체를 이슬람 배경 독자의 눈으로 따라가는 플랫폼입니다.



기도로 먼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01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이슬람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 한국어가 터키어로 번역될 때도 복음이 마음 가까이에 닿도록.

02 새 신자들의 성경 읽기 습관

매일 스스로 성경을 열어 읽고, 작은 습관이 뿌리가 되어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03 사역자의 건강과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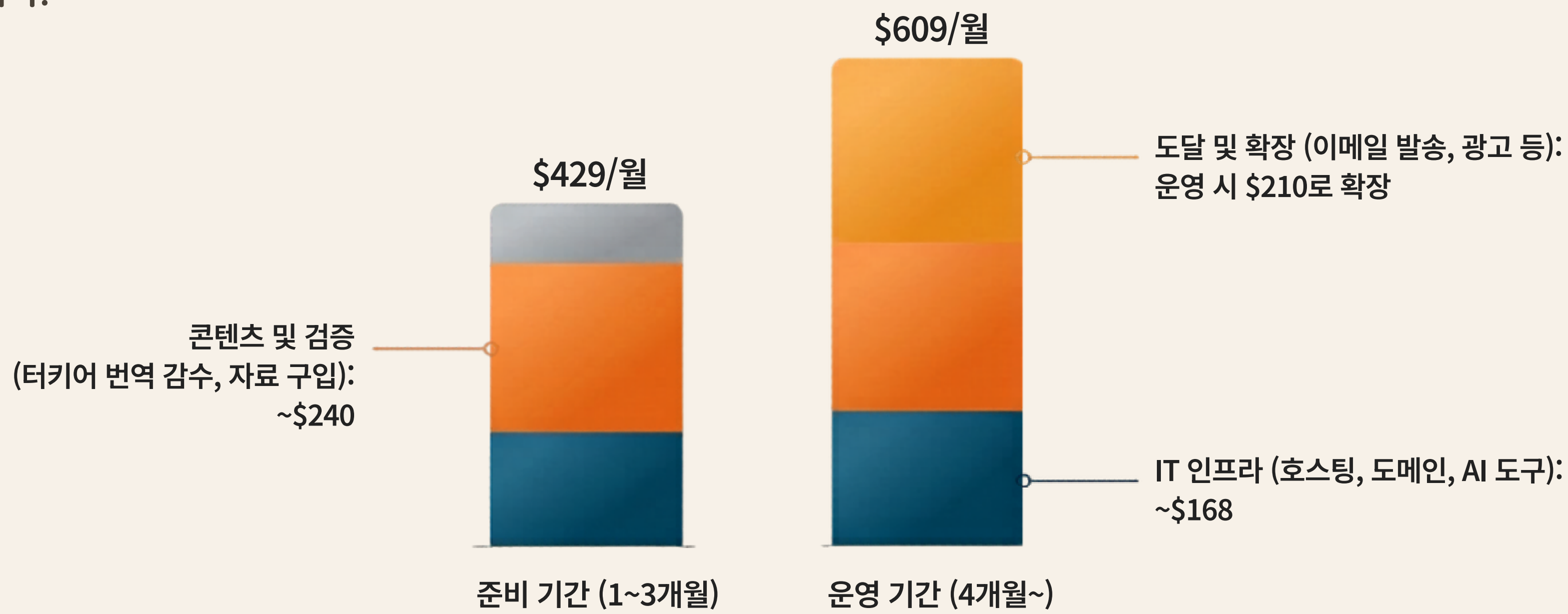
콘텐츠 제작을 현지 사역과 병행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04 새 신자들의 가족·사회적 압력

주위의 압박 속에서 두려움 없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월 운영예산

Felicity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서 46일로 시작하지만, 구약까지 성경을 더 깊이 볼수록 콘텐츠는 확장되어질 계획입니다.



기도가 먼저

"후원이 없어도 **Felicity**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후원 방법

KEB하나은행 990-018692-324 기독교한(김필성)
FMB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후
"**Felicity 후원**"이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문의

@ umutbridge@gmail.com
fillgun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 이사야 41:10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튀르키예에서, 김하늘 · 박나라